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의 가치

허권*

요약

인류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이의 교육적, 문화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산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의 자산이다. 종래에는 유산을 한 사회와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 이의 보존에 집중하였지만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유산이 갖는 본래적 가치를 다학문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창의성의 근원, 문화 및 종 다양성의 핵심, 평화와 문명간 이해증진의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뿐 아니라 성인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의거 매년 추가되고 있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은 국제이해교육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역사와 문화이해 뿐 아니라, 인권, 평화, 과학기술, 환경, 예술 등 다양한 주제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기의 학생에게 세계를 보는 시각형성에 세계유산이 매우 유익한 주제로 부각되어 전 세계 많은 ASP 및 초등, 중등학교에서 정규교육 내 이와 관련된 과목이 신설되고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도 문화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느껴 과거의 역사와 유물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유산교육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해 우리 학교현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이해교육과 연관시켜 세계유산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지원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세계유산협약, 세계문화유산,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ASP, 미지센터, 교육콘텐츠, 지속가능한 발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ICOMOS-Korea 부위원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I. 서론

유네스코는 유산(遺産, heritage)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산은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며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니고 있다. 각 사회와 국가가 개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들 유산들은 무엇보다도 한번 파괴되면 원형회복이 힘든 대체 불가능(irreplaceability)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한 각종 개발과 자연재해로 훼손, 망실 혹은 소멸된다면 전 인류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유네스코는 창설이후, 대체불가능하고 인류문명 발전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모두 4가지의 유산목록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그중 “세계유산목록 World Heritage List”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¹⁾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이 두 유산의 성격을 합친 복합유산 등 3가지 유형의 유산으로 구성되는데 세계유산목록은 지구상의 여러 문화 및 자연유산 중에 특별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산(기념물, 사적, 건축물군, 문화경

1) ① 세계유산목록, ②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③ 세계기록유산목록, ④ 인간과 생물권(MAB) 네트워크 목록 등이 있으며 이외에 세계 Geo Park 목록, 세계창의도시 목록 등을 유지하고 있다.

관; 빼어난 풍광지구, 지질학적 중요지, 다양한 종 서식지)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선별 목록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의 하나로 정규 및 비정규과목, 특별활동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세계유산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오늘날 범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통합적, 다학문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고 아울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인류 및 지구역사의 축소판이다. 여기에는 인권, 평화, 전쟁, 창조, 환경, 상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세계유산의 교육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의 현장 적용이 여전히 한계적이며 미진한 감이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각급학교 교사들이 세계유산교육을 현재 문화재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교육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세계유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유산교육은 그 성격상 통합과목으로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의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II. 유산의 정의와 개념의 변화

유산은 한 사회의 문화, 예술, 전통 중 민족의 뛰어난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문화유산현장>³⁾에서는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라고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문화관광부가 채택한 <문화현장>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전국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전통은 보존”되어야 하며 “국민은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하고 향유할 권리,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며 각 지역 주민들은 자기 고장의 언어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기반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면서 유산의 보호와 창조적 발전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명시하였다.

정부의 각종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의 유산에 대한 시각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양대 목표에 따라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전략사업들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보는 유산의 정의와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각도와 여러 측면에서 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오

2)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라는 개념이 개별 자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문화유산은 한 사회의 공통적 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3)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서 제정. 국가공식 문서에 문화재라는 용어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산의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로는 유네스코, UNDP, World Bank 등이 있으며 비정부 단체로는 ICOM(세계박물관협회)⁴⁾,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⁵⁾, IUCN(세계보전연맹)⁶⁾, ITI(국제극예술협의회) 등이 인류유산 보호사업을 위한 규범화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관 중, 유네스코는 창설이후 지금까지 교육, 과학, 사회과학, 문화 분야 등의 국제규약(헌장, 선언, 권고안, 협약)을 총 69건 채택했는데 이중 인류유산의 보호와 직접 연관된 국제규약은 19건이다.⁷⁾ 이들 규범 중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협약은 <표 1>과 같다.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이들 유산 관련협약과 권고안 등에 나타난 인류유산에 대한 가치와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은 문화 및 종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로 이는 각국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 등 해당 민족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각국의 유산을 잘 보존

4) 세계박물관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useum. 1946년 창설된 대표적인 박물관관련 비정부국제기구로 137개국 약28,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http://www.icom.org>

5)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전 세계의 역사적 기념물과 사적의 보전을 위해 1965년 창설된 비정부 국제기구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해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자문하고 있다. <http://www.icomos.org>

6) 세계보전연맹 World Conservation Union.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해 1948년 창설된 비정부기구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해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자문하고 있다. <http://www.iucn.org>

7) 문화분야 17건, 자연과학 분야 1건, 커뮤니케이션 분야 1건이 유산보호와 연결된 국제규범이다.

〈표 1〉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국제협약

No	협약명	년도	대 상	특 징
1	전시문화재 보호협약	1954	동산유산, 부동산유산	- 전쟁 및 무력충돌시 문 화재보호 관리 지침 • 일명 ‘헤이그 협약’
2	문화재 불법 밀반출 및 소유권 양도 금지에 관한 협약	1970	동산유산	- 불법도굴, 밀거래 방지 지침 - INTERPOL 등과 협력
3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1972	부동산유산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OUV 지닌 문화, 자연, 복합유산의 지정 및 국 제적 보호 • 일명 ‘세계유산협약’
4	수증문화재 보호협약	2001	동산유산	불법도굴 방지
5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	2003	무형유산	- 무형적 가치, 표현, 문화 공간 보호 •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 목록
6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2005	문화일반	- 유무형 유산, 문화산업의 보호 및 국제협력 등 • 일명 ‘문화다양성협약’
7	조류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 협약	1971	자연유산	• 일명 ‘람사르 협약’

함으로써 인류는 전 세계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종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보호가 선결되어야 한다.⁸⁾

둘째, 문화유산은 창조의 원동력이다. 과거의 전통과 표현은 현재

8) 문화다양성의 증시로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을 참조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보고라는 견해이다. 전통과 유산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적 관점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문화유산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 당대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인류는 미래사회의 창조가 가능하다.⁹⁾

셋째, 인류의 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이다. 발전은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에 전통 공예, 지식, 삶의 예지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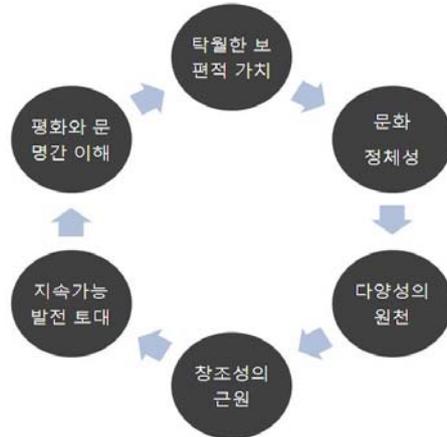
넷째, 인류의 유산은 평화와 문명간 대화의 촉매제이다. 문화유산은 민족과 국가간 갈등의 대상이자, 무력충돌시 최대의 희생양이었다. 문화제국주의, 문화소비니즘, 반달리즘 등 여러 이유로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는데 인류유산은 갈등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문명간의 대화를 증진하는 매개체이자 상징이다.¹¹⁾

위의 같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그동안의 각종 국제규약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문화 정체성의 고양, 문화 및 종 다양성의 보호, 창조성의 근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평화와 문명간 이해증진 등의 대표적인 상징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9) 영국 English Heritage는 정책의 기초를 과거를 통한 미래의 발전, Future of the Past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0) 유네스코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2005-2014년간 ‘지속가능발전 교육 10개년 사업’을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1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단에 의한 바미얀 석불의 파괴 행위가 대표적이다. 의도적인 문화재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2003년 이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림 1] 세계문화유산의 핵심가치

- 문화정체성과 사회통합의 요소 -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관한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
-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건축물군, 유적지 - “세계유산협약”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 전통 및 과거의 정신적 업적의 성과, 증거이며 세계문화의 주요 구성 요소 -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에 의해 위협시 되는 문화유산 보존 권고안”, 1968¹²⁾
- 인류의 문화유산의 부분 - “전시문화재보호협약”, 1954¹³⁾
-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고,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 -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70
- 문화유산은 창의성의 원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2001
- 무형문화유산은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 자연, 역사와의 상호작용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III. 세계유산의 다양한 활용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의거 1975년부터 세계유산목록을 유지해 오고 있다.¹⁴⁾ 세계유산이라 함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의미하며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 등 3가지로 나뉘지며 현재 문화유산의 등재수가 절대적으로 많다.¹⁵⁾

동 협약의 제정목적에 따라 문화유산은 사적, 기념물, 건축물군, 문화경관과 같은 부동산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박물관 등에 소장된 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와 같은 유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다수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킨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로 유럽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인도 그리고 중남미지역에선 멕시코 등이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올리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은 세계유산 선정기

-
- 12)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를 세분화했으며 특히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국제규약.
 - 13)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를 세분화한 최초의 국제규약.
 - 14) 2011년 10월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하여 유네스코가 제정한 협약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을 확보한 협약이다. ‘세계유산목록’ 이외에 기존의 세계유산 중, 자연환경의 변화 및 인간에 의한 개발로 위기에 처한 유산을 별도 관리하는 ‘세계유산 위기목록’, 그리고 각국이 장차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 할 후보유산인 ‘잠정목록’ 등이 있다.
 - 15) 유네스코 세계유산사업의 자문단체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UCN(세계보존연맹)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ICOMOS, 자연유산은 IUCN의 전문가문을 받아 각국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을 공식 지정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53국의 총 936점이 지정되었고 이중 문화유산이 725점, 자연유산 183점, 혼합유산 28점이다.

준¹⁶⁾을 참고하여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보존관리 능력, 유사 유산과의 비교, 모니터링 체제 등에 걸쳐 상세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유산의 지도, 도면과 함께 영상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유산 신청서의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됨에 따라 학술연구에 기반한 각종자료의 객관성, 진실성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방안 등이 아주 세밀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은 그 탁월한 가치로 인해 교육 학술적 가치 이외에 관광 및 문화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국의 활용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on/off line 콘텐츠가 교육적, 관광적,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개발되어 각급학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점차 상업화의 과정을 거쳐 다품종 고급화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1. 교육콘텐츠

세계유산은 역사 및 문화, 자연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로 이를 통해 인류의 진화와 역사적 변천과정, 전통, 과거의 삶, 사상, 예술 그리고 현대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협동학교 Associated School 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16) 모두 10개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중 6개가 문화유산, 나머지 4개가 자연유산의 선정기준이다. 등재를 희망하는 유산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알맞은 선정기준에 맞춰 그 근거를 구체적, 학술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최근 문화경관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선정기준과 함께 자연유산 선정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콘텐츠로서의 교육방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역사과목의 하나로 학습하였지만 현재는 미술, 음악, 생활사, 경제, 정치, 지역사 등 여러 인접 학과와 연계한 교육방법이 고안되고 있고 아울러 문화유산을 소재로 평화교육, 환경교육, 세계화 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에 기여하는 통합 방법론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 지식의 욕구증대는 창의적, 서사적 콘텐츠의 수요층을 자극하며 아울러 다양한 매체기술을 활용한 문화산업의 주요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유형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① 세계유산 보호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세계유산의 지정 및 보호 필요성, 의의, 배경 등으로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역사교육의 보조 콘텐츠: 개별 유산의 역사적 가치, 특징을 역사교육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식 및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교육콘텐츠가 풍부한 편이다.

③ 통합적 교육콘텐츠: 미술, 창작드라마, 문학 등 다학문적 교육방법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역사, 건축사, 미술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성, 세계관, 지역의 깊은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유산을 위한 교육 ‘heritage education’이 아닌 유산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quality education through heritage’가 선호되면서 이 방면의 다양한 방법론과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2. 관광자원

세계관광시장에서 세계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¹⁷⁾ 유산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세가 가장 높은 관광이며 특히 후진국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빈곤타파를 위해 유산관광산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¹⁸⁾

유산관광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유산의 인지도 향상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관광객의 대폭적인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이다.¹⁹⁾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될 수록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 관광뿐 아니라 종교목적의 순례여행, 학술답사, 광고제작 등의 이유로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장은 세계유산의 가치훼손과 연결되어 유네스코, 세계관광기구 등은 지속가

17) 베니스 관광객은 매년 1,300-1,500만 명으로 거주지 1인당 40명의 관광객 비율이다.

18) 후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객의 동향을 조사한 연구결과(1990-2005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6.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동기간중 선진국은 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60%가 후진국에 위치해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역,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르드르사원과 프람바난사원, 말리의 팀부추 역사도시, 과테말라의 티칼, 네팔의 룸비니 사원, 터키의 이스탄불 등이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들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1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 7대 불가사이를 보더라도 6개가 후진국에 위치해 있다. 치첸이차(멕시코), 예수입상(브라질), 만리장성(중국), 타지마할(인도), 페트라(요르단), 마추픽추(페루)

19) 이집트의 피라미드, 프랑스의 에펠탑, 영국의 스톤헨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인도의 타지마할,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일본의 나라,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 체코의 프라하 왕궁 등 거의 모든 세계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국가적 상징들이다.

능한 관광전략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관광으로 인한 유산의 지속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3. 문화산업

세계유산의 관광가치의 급증은 자연히 다양한 문화 및 교육콘텐츠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산해설서, CD, 화보집, 비디오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보급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상징 21』(한국학중앙연구원, 2009)에서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세계유산은 해당 민족과 국가의 상징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상품으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판, 광고, 디자인 등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의 상품개발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과 OSMU (One Source Multi-use)전략의 접목 등의 방식을 통해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가능성은 매우 높다.

IV. 세계유산교육의 국제적 동향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교육사업은 1994년 ‘세계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데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류공동 유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인식하고 세계유산과 더불어 자신들의 유산이나 다른 문화의 역사와 전통, 생태계의 가치 그리고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교육자와 유산보존전문가들이 교육 과정에 세계유산교육을 연계하고 각 지역사회의 세계유산지역에서의 과외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효과적인 교습교재를 개발하는데 있다. 실제로 교육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현 교과과정에 유산교육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넓은 의미에서 유산을 조망해보는 즉, 단순히 역사나 지리의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유산을 관찰하면서 세계와의 관련 주제들을 다루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ASP 세계유산사업

실제로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협동학교네트워크(ASP network)²⁰⁾를 활용하여 <세계유산청소년포럼>이나 세계유산교육자료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UNESCO, 2002)』²¹⁾를 이용한 교사훈련사업 또는 청소년

20) 유네스코 이념의 보급을 위한 민간협회와 클럽이 전 세계적으로 4,000개가 조직되어 있고 약 8500교의 학교가 유네스코 협력학교 사업(Associated School Project)에 가담하고 있다.

21) 한국어판은 200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유산: 배우고 존중하며 행동하자』라는 제목으로 공동간행되었고 세계유산의 교육적 활용접근,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과 정체성, 관광, 환경, 세계평화 등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교육 참고자료가

들을 위한 현장실습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미 북경 청소년포럼(1997), 수코타이 워크숍(태국, 2000), 비간 워크숍(필리핀, 2001), 북경ASP 워크숍(2005), 페낭 워크숍(말레이시아 2006)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2005년 서울, 수원화성, 창덕궁 등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세계유산교육과의 통합을 위한 세계유산교육관련 교사교육 및 연수: 이동훈련팀 프로젝트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유산교육을 접목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통한 갈등경험’,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의한 세계문화유산 보전사례 공유하기’, ‘세계문화유산과 환경적 가치와의 관련 조사’, ‘다른 사람들의 활동 사례나누기’, ‘현장 탐방의 중요성 알기’ 등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2.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사업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996년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된 <대학교 유산-유네스코 포럼>이 있다.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역할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교 대상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에서의 유산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논의를 통해 인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활동을 전개하며, 청소년 워크숍이나 워크캠프를 개최하고 다양한 책자발간을 통해 인식확산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다.

첨가되어 있다. 각 장은 각각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주제별 설명과 함께 학생들과의 interactivity를 향상하기 위해 ‘학생활동’, ‘학생활동지’ 및 게임과 퍼즐이 편성되어 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대학원 이상의 전문교육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육, 연구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의 <대학과 유산>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에는 주로 조사, 연구, 자문, 정보 및 자료교환 등 석박사급 이상의 젊은 전공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쓰꾸바 대학교, 중국의 칭화대학교 등 전세계 20여 대학교가 가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네스코에서는 박물관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유산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ICOMOS, ICOM, IUCN 등 국제적인 NGO활동을 통해 유산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V. 국제이해교육 주제로의 적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유산은 과거의 사건, 기억의 총체를 넘어 현재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조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배양시키는 훌륭한 교육주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다. 유산보호의 필요성, 유산이 처한 위기, 이를 극복하는 국제협력 등 유산보호정책의 기본 주제뿐 아니라 학생들의 타문화 감수성과 국제이해교육에 필요한 파생적 주제 즉, ‘문화정체성의 고양’, ‘문화다양성의 보호’, ‘창조성의 근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평화

와 문명간 이해증진’, ‘민주주의’, ‘기후변화’, ‘종 다양성’, ‘관광의 양면성’, ‘환경’, ‘수자원보호’ 등의 주요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유산의 교육현장 적용은 폭넓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향유하고 책임지어야 할 인권을 강화시키는 토대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연계하여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정체성의 고유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유지할 권리, ② 우리의 유산과 함께 타문화유산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권리, ③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우리의 것을 미래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유산 보호에 저해되는 정책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⑤ 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결사의 권리 등은 왜 세계유산교육이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필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²²⁾

1. 문화와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단순히 과거 역사와 문화재 지식을 습득하는 1차적 학습 목표 이외에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범세계적인 과제와 직결된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는 2차적 학습목표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문화다양성이 중시되고 다문화간 소통의 중

22) 1998 스톡홀름 선언. ICOMOS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 문화유산권(right to cultural heritage)을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였다.

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교육에 있어서 단순 지식과 앎을 중시하는 1차적 학습목표보다는 소통과 창조적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2차적 학습목표가 중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과 문화는 마차를 이끄는 양 바퀴처럼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라는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면서 양 바퀴는 앞으로 진전하는 방향성과 운동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교육은 수단이고 문화는 목표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문화적 수단을 통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교육을 실시할 때,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 학교와 학습자의 의욕과 지식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교육, 그리고 지리과 정규 공부의 보충학습 등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의 교육방법이던간에 세계유산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자는 왜 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지 등에 있어 보다 확고하고 명료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세계유산교육의 기본 철학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사회관, 세계관, 타문화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방식과 철학에 대해 철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 인류학적 접근방식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수정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변하고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당면과제를 위해 문화

재, 예술 등 고급예술과 창조자를 중시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 혹은 문화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0년간 실시한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88-98)의 최종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정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과 시설의 결핍이나 제도의 낙후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분절된 인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종래의 문화정책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창조자, 예술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정책은 대중의 문화적 삶을 고양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삶과 문화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인류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문화발전을 선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다 풍부한 감수성, 문화수용능력,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²³⁾

문화정책에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사회를 위해 점차 교육인류학이 중시되고 있다. 교육과 문화의 관계를 보는 종래의 교육학 시각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문화를 전승하는 보수적 기능과 이에 반해 문화를 개조하고 증진하는 창조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해 왔다(김인회, 2001:72).

교육의 창조적 기능이 중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보수적 기능이 우선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되었던 문화지식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23) 이를 위해 문화정책에서도 통합적 접근방식, 인류학적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문화는 지식의 대상으로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인류학을 교육연구와 실천에 활용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휴위트(Hewett, 1904)이고 몬테소리(Montessori, 1913)가 ‘교육인류학 (educational anthropology)’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학자이지만 교육인류학이 하나의 체계적인 연구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후반으로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미국 교육인류학의 경우, 1969년 결성된 ‘인류학과 교육학협의회’가 시발점이며 국내에서는 1970년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문화와 교육’이라는 명칭의 강의를 시작된 것이 한국 교육인류학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다(조용환, 1998:132). 주로 인류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되기 시작한 교육인류학에 대해 인류학자와 교육학자간 연구의 영역과 인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점은 오늘날의 교육학은 대중의 문화적 개별성과 삶의 방식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이 변모해 가는 교육관이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좀 더 비중있게 다뤄지고 교육과 문화와의 상관관계와 접점을 늘려가는 노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 총체적, 통합적 교육방식의 도입

2000년 문화재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문화재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일선교사를 위한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지침서: 문화재교육의 이론, 방법 및 실

제』를 발간하였다. 학교 자체의 문화재교육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기관 및 NGO의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여 문화재를 가르치는 ‘학교방문교육’ 협력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초중등학교를 ‘문화재 지정학교’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교육을 점차 확산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재 지역에서의 봉사활동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문화재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의 성장,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이행되고 있는 세계유산교육의 동향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편협한 범주에 속하고 있어 유산과 사회, 세계를 잇는 폭넓은 국제이해교육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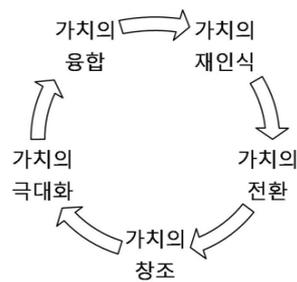
한편, 교육과학부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99. 12. 30)이후 10여년 만인 2007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좀 더 광범위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개정교육과정을 2009년에 발표하였다.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은 ①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을 감축하고, ②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③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④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9)

이와 같은 개정의 배경과 방향을 살펴보면 2009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외적 요구와 국가 교육과정의 질 개선이라는 내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핵심 역량을 신장시켜 ‘글로벌 창의 인재’를 만들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강화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를 개선하여 교과 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의 실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탐구영역인 사회, 과학의 교육은 기존의 지식전달위주의 획일적 수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등 수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의 방향 수정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창조적 교육활동의 폭이 넓어졌고 교과목간의 통합을 통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세계문제를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식 및 체험활동이 학교



[그림 2] 유산 가치의 순환

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기반이 구축되었다.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유산교육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단순 지식의 전달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활동과 통합적, 총체적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관, 사회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가치를 재창조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즉 “미래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에 부합시키는 발전” 형태는 1980년 이후, 많은 학자와 행정가들 사이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개념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① 사회평등 ② 경제적 부 ③ 환경간의 통합적인 균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88-1997)을 통해 발전에 있어서 문화적 영역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문화가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든, 아니면 모든 사회계층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표로 설정되던 간에 이러한 유네스코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발전과 문화간의 상관관계를 새롭게 인식시킨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다.

환경론자들이 주축이 되어 개념화되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히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이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학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형성에 “문화”에 대한 고려, 문화적 가치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

을 해오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사회발전의 계획에 본질적으로 문화적 요소, 문화적 영역, 문화적 전략, 문화와의 상관관계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문화의 핵심구성인 문화유산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국제사회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05-2014>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포괄성과 모호성 때문에 또한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해 오던 관련 여러 교육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접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개념과 방법상의 모호한 성격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별도로 추진된 녹색성장교육 등과 충돌이 되어 학교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분야와의 연계성이 미약한 현 녹색성장정책에서 세계유산교육과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때로 세계유산과 환경, 세계유산과 사회, 문화, 세계유산과 경제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연계될 수 있고 때로는 통합적 접근이나 시스템적 사고 등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 세계유산교육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 또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계유산을 포함한

유산교육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유산교육에 있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한다는 개념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환경과 자연유산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방향에서 청소년들의 유산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된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인간, 사회,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유산은 그 속성상 주변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서 탄생된다는 측면이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효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도전받고 있는 각 민족의 고유전통과 문화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진흥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전통의 것을 지킨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이웃 국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노력은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만을 보호한다는 국수주의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인류사적인 안목에서 이웃 국가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체험과 방문,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사회의 유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유산의 궁극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의 국제사회 분쟁에서 극단적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가한 유산 파괴행위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보다는 인류유산의 보편성을 유산교육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유산교육을 통해 새로운 창의성이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와 상생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실에서의 주제(예시)

○ 세계유산학

- 유산보호의 필요성
- 분야별 세계적인 유산 이해
- 한국의 세계유산
- 위험요인과 보호사례
- 국제협력과 한국의 기여
- 청소년의 참여 및 실천가능한 방안 등

○ 보호의 위기

- 전쟁과 무력충돌(유고,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등)
- 평화와 문화간 대화
- 난개발(도로, 교량, 주택단지, 공단, 테마공원, 디자인 등)
- 관광(과도한 관광정책의 피해, 관광객의 무지 등)
- 문화재도굴 및 불법거래
- 자연재해(지진, 화재, 쓰나미, 태풍 등)와 기후변화
- 아프리카와 태평양

○ 문화재관리학

- 모니터링
- 복원, 보전, 관리, 활용 등의 분야별 기초지식

○ 지구의 보전을 위해

- 생활과 유산과의 관계
- 지속가능한 발전
-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
- 환경의 보호, 종 다양성

특히 분야별 세계유산의 소개를 위해 국가별, 유산별 소개를 국제
이해교육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
해 이야기형 주제를 개발하여 그룹활동, 개별과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글로벌 및 지역별 가치형 소재: 탁월한 가치, 영향력, 비교우위 등
- 문화교류형 소재: 실크로드, 노예의 길, 철의 길, 순례자의 길,
인권, 민주주의 등
- 이야기형 소재: 신화, 전설, 민담, 역사, 문학 등
- 예술형 소재: 건축양식, 회화, 서예, 복식, 문양, 음악, 춤, 축제 등
- 경영 및 전략형 소재: 전투, 놀이, 외교, 교역 등
- 기술형 소재: 건축공법, 지도, 산업기술, 농사, 어로, 음식, 의학 등

VI. 세계유산통합이해교육 사례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²⁴⁾가 2007년부터 시작한 <세계문화유산 통합이해교육>이 세계유산을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실시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이 사업은 종래 학교 및 문화단체가 추진해온 역사지식의 단순 전달방식을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촉발하고 이에 대한 관계의식을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유산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으로 인식시키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었다.

미지센터의 프로그램은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내부 교육과 교육현장(초등학교, 청소년센터)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방문교육으로 나뉘진다. 문화재 방문교육은 미지센터 이외에도 (사)한국의 재발견에서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전국 8개 시도로 확대되었지만 이들 교육은 한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국제이해교육 차원이기보다는 우리 문화재교육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지센터는 세계유산교육을 국제이해 차원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계유산 교육자료집을 개발하였고 이의 교육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 외국인 등을 선발하여 2-3개월간의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이수케 한 뒤, 매월 1~2회 토요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4) 미지센터는 서울시의 청소년 특화청소년시설 중의 하나로, 서울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간의 협약에 따라 2000-2012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해 왔다.

1. 교육목적과 방향

미지센터 교육사업의 목적은 세계문화유산의 다양한 형태, 가치, 역사적 의미, 발전 등에 있어 그 개별적 차이에 대한 기본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차이의 발견(finding difference)
- 차이의 인식(acknowledging difference)
- 차이의 이해(understanding difference)
- 차이의 존중 (respecting difference)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의 다름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다양한 형태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나, 이러한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문화주의 속에서 참다운 개체로서 존립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더 중요한 교육목적이자 국제 이해교육의 방향이었다.

이러한 3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유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인지화 단계	구성, 창작화 단계	통합화 단계
지식	이해 및 창조	통합인식
배움과 토론	존중심 이해력 창의성	다양성 세계시민의 자세

2. 유산의 선정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형태적으로 볼 때, 기념물, 사적, 건축물군, 문화경관 등 다양한 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적 배경도 구석기 유적지에서 근현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유산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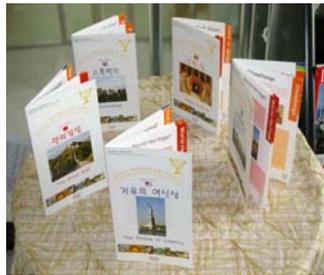
이를 위해 기존에 출간된 학생용 세계유산 관련 책자의 내용분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세계유산의 기초 지식이 부족했고, 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부 유럽, 아시아의 유산들은 잘 아는 반면, 제3세계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의 편중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리, 유산형태, 다양한 역사적 배경, 주제를 감안한 21개의 유산을 선정하였다.

1) 아시아 (8개): 창덕궁(한국), 수원화성(한국), 에스파한(이란), 타지마할(인도), 보로부두르 사원(인도네시아), 만리장성(중국), 앙코르와트(캄보디아), 이스탄불(터키)

2) 유럽 (7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그리스), 바우하우스 유적(독일), 알함브라(스페인), 스톤헨지 거석 기념물 (영국),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프랑스), 폼페이 고고 유적(이탈리아),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폴란드)

3) 미주 (3개): 자유의 여신상(미국), 브라질리아(브라질), 마추픽추(페루)

4) 아프리카 (3개): 멤피스, 기자 피라미드 지역(이집트), 고레 섬(세네갈), 마라케쉬의 메디나(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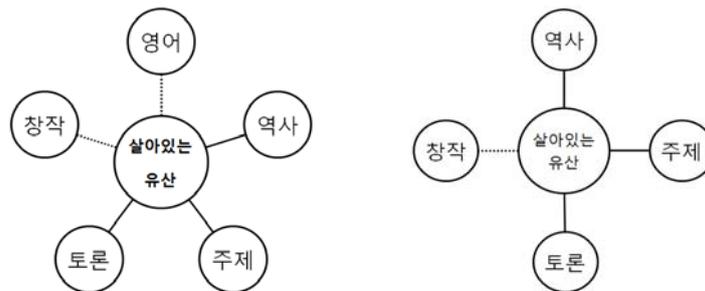
목조건축물의 특징은 한국유산을 통해서, 국제협력과 지원은 보로 부두르 사원과 앙코르 와트 사례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마추픽추 유적지를 통해, 문명간 갈등은 알함브라,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를 통해서,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유의 여신상과 세네갈의 고레 섬을 중시하였다. 아울러 근·현대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독일의 바우하우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를 포함하였고, 자연재해의 대표적 피해유산으로 폼페이 유산을 선정하게 되었다.

3. 교육방법

유산교육은 기본적으로 재미와 함께 교육적 유발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의 역사위주의 교육방법론, 보존중심의 유산교육은 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보완하지만 새로운 차원에서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창의성과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해당 유산의 외국인 자원봉사자

를 보조교사로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세계유산을 설명하는데 영어, 역사, 주제, 토론, 창작이라는 5개의 영역을 통합한 방식을 채택하였고 전체 사업의 주제로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영어 영역을 삭제한 역사, 주제, 토론, 창작의 4개 영역 혹은 영어와 창작을 배제한 축소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3] 세계유산교육 구성

4. 교육자 훈련

유산교육의 성공여부는 교육자의 전문성, 문화유산 이해도, 성실성 및 사전 준비의 충실도에 달려 있다. 피학생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각 단계별 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이끄는 교육자의 사명감, 교육달성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강조해야 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방법론 및 해당 유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문학교와의 사전 접촉을 통해 교사들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세계유산교육의 성

공적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VII. 결 론

문화유산은 문화정체성의 근간이며 또한 한 사회, 한 국가의 문화 다양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세계화 속에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므로 문화유산의 보호과정에 동참시키고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직 교육과 현장경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산교육과정은 미흡하기만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유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넘어 과거와 현대를 거쳐 미래에도 우리 문화발전의 중요한 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유산교육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녀온 전통과 역사 및 자연을 배움으로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가 가진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문화정체성의 기반으로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문

화교육의 방법으로 그리고 평화의 문화의 초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직까지 세계유산을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교육을 문화재 일반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기초지식의 습득, 감수성의 함양 등은 매우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문화재 교육을 넘어 전 세계를 이해하는 교육 주제로 세계유산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향후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인회(2001). 국제이해교육과 한국무속의 이해. **국제이해교육** 가을 5.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 문화재청(1997). **문화유산현장**.
- (2000).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지침서: 문화재교육의 이론, 방법 및 실제**.
- (2005). **세계유산 등재 신청 매뉴얼**.
- (2007). **문화재활용 가이드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6). **동아시아 유네스코 협동학교 교사 워크숍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강릉시(2006).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청소년의 참여. **무형문화유산 지방정부 관리자 국제워크숍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2007).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유산: 배우고**

존중하며 행동하자

- 조용환(1998). 교육학에서의 문화연구.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21 **Korea Icons**
- 허 권(2002). **세계문화유산의 동향과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0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연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 석사논문.
- Dallen J. Timothy and Gyan P. Nyaupane(2009).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in the Developing World: A Regional Perspective(ed.)*, Routledge. 3.
- David Harrison and Michael Hitchcock(2005). *The Politics of World Heritage: negotiating Tourism and Conservation(ed.)*. Channel View Publications. 103.
- Lyndel V. Prott(2001). 문화유산에 관한 국제기준의 설정. **유네스코포럼** 16(20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UNESCO(1995). **Our Creative Diversity**.
- (2002).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 (200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및 운영지침**.
- (2005). *All Different, All Unique*.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
- 미지센터 <http://www.mizy.net>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ICOMOS <http://www.icomos.org>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Abstract

Educational Value of World Cultural Heritage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Korea

Invited Professor Huh, Kwon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UNESCO defines that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 Heritage is now regarded as the asset of future, not just as the memory of past. Today, in addition to the conservation of our heritage of humanity, the increasing efforts have been made to its educational and cultural utilization in many countries. In the legal instruments of UNESCO and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s have been emphasized a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ources of creativity, core of cultural and bio-diversity, symbol of peace and human right, and bridge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 particular, “world heritages” which are added every year by UNESCO's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he most valuable source for th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llowing the strong recommendations 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ny UNESCO's associated school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o provide the young children with the glob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s like the other countries, Korea also paid much emphasis on history education at the formal

education level. However, Korea's approach is still confined within the limit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mainly focusing on history and art of properties. In views of the main objectives of world heritage education, Korea is not yet introducing the integrated educational methods for world heritage into the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s. World heritages are the crucial educational sources for human right, climate change, environment, peace, dialogue and human respect. New educational initiatives should be urgently made to develop the teaching manuel and proper methods based on the 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

Key words : World Heritage Convention, World Heritage, UNESC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SP, educational content, MIZY Cente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2. 01. 29

심사수정일 : 2012. 06. 17

게재확정일 : 2012. 06. 23